

간호대학생의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미혜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Mi-Hye Lim

Department of Nursing, Joong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대학생활적응정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J와 C도에 소재하는 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166명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6년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SPSS 21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3.27(± 0.56), 인성은 6점 만점에 4.34(± 0.59)점,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48(± 0.40),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2.76(± 0.32)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전공만족도($F=18.263, 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활적응은 인성($r=.512, p<0.001$), 비판적 사고성향($r=.508, p<0.001$), 전문직 자아개념($r=.614, p<0.001$)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에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전문직 자아개념임을 확인하였고, 이들 세 변인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3%이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과 개발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내에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전문직 자아개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s well 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nursing students. The study was conducted on 166 nursing students in C and J Provinces, between May 25th and June 10th 2016.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ean score of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was 3.27 (± 0.56), character was 4.34 (± 0.5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3.48 (± 0.40),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2.76(± 0.32).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character ($r=.512, p<0.001$), as well a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508, p<0.001$)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r=.614, p<0.001$).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were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which explained 43% of the variance i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Based on these findings, programs that develop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are necessary for college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promote college adjustment.

Keywords : Adjustment, Character, Critical Thinking, Nursing Student, Professional Self-Concept

*Corresponding Author : Mi-Hye Lim (Joongbu University)

Tel: +82-41-750-6260 email: 12veronica@joongbu.ac.kr

Received July 21, 2016

Revised (1st August 1, 2016, 2nd August 10, 2016)

Accepted August 11, 2016

Published August 31,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로,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 기대, 책임, 자율 등을 요구받고 직업 및 진로, 학점관리, 대인관계 등의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어 [1,2],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은 인간 성장의 기회인 동시에 부담이 되는 시기이며, 특히 요즘 대학생활이 졸업 후 취업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대학생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적응하여 성공적으로 지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4].

최근의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간호학과는 다른 전공에 비해 비교적 높은 취업률로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늘고 있으나,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임상실습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하는 등 학업부담이 과중하고, 교육과정 내내 의료인으로서 과학적 지식에 따른 비판적 사고능력, 윤리의식 및 전문직관 등이 요구되어 대학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3,4], 간호학과에 입학한 이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간호전문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없이 졸업 후 바로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입사 1년 이내 신규간호사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이직 의도가 매우 높아 임상현장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5].

간호학생들이 전문간호인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대학환경에 잘 적응하고 간호에 대한 성찰과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아상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직자아개념은 간호사가 지니고 있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스스로 만족할 때 긍정적 자아개념이 생기며, 전문직자아개념이 형성될수록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전문인과 조화를 이루며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6] 전문직 간호사로 가는 과정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이 전문적 지식, 가치, 기술에 대한 자아평가를 통해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적사고 또한 사실 혹은 증거에 기초한 판단을 하는 사고로, 건강관련 문제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간호사들이 환자중심의 간호, 근거중심실무, 간

호의 질보장,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고로[7],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아 전문적 책임과 질적인 간호수행을 위한 실무역량에 영향을 주는 필수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8]. 간호학생들에게도 비판적 사고는 대학교육에서 함양해야할 필수적인 간호역량으로, 간호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에 대한 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간호학 적응도도 높아 졸업 후 전문간호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9,10].

또한 최근에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호현장에서도 인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산업체에서도 대학졸업생의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올바른 인성을 요구하고 있다[11].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특성으로[12]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요소와 품성과 인격을 의미하는 뉘됨이의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할 바람직한 품성을 의미한다. 간호에서도 간호사로서 갖추어야할 바람직한 품성을 의미하며, 간호사에게 인성은 전문직업관 확립의 기초 요소로서 간호대학생들이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중 인성적 자질과 인성함양교육 또한 중요하다[13]. 대학에서는 간호학생들의 대학생활 중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여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전문간호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4,13,14].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감성지능[4,15,16], 정서지능, 임상실습스트레스[1,3,15,17],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18]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과 특히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인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인성연구에서도 인성을 성격진단검사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실력과 인성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확인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6년 6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와 J도에 소개한 2개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이었다. 이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에 동의한 대학생들을 편의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Cohen 공식에 따라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중간정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08로 설정하고 탈락률 10%을 고려하여 산출된 표본수는 150명 이었다[19]. 본 연구의 참여자는 172명이었으며,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완전한 8부를 제외한 16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자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를 허락한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설문조사 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연구참여의 자율성과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조사 내 연구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참여 수락을 위한 동

의서를 받은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Jeong과 Park[20]이 개발한 대학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활동, 진로 준비, 개인심리, 대인관계, 사회체험 영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8$ 이었다.

2.3.2 인성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특성을 의미하며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품성으로[12], 본 연구에서는 Lee 등[21]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3개 영역에 대한 60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6점까지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5$ 이었다.

2.3.3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동기, 바람, 태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Yoon[2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지적열정,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 영역으로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여 부정 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0$ 이었다.

2.3.4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Arthur[23]가 개발한 도구를 Sohng과 Noh[24]가 변안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4점 척도의 자가보고 도구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범위는 27점에서 108점이며, 부정적 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ohng과 Noh[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5$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4$ 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대학생활적응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중 여학생이 78.3%, 남학생 21.7%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17.5%, 2학년 35.5%, 3학년 31.9%, 4학년 15.1%이었으며, 종교는 있다 39.8%, 없다 60.2%이었다. 가족 중 의료요원이 있다 19.3%, 없다 80.7%이었다. 임상실습경험은 있는 학생이 48.2%, 없는 학생이 51.8%이었으며, 전공선택 동기는 적성에 맞아서가 36.1%, 취업이 잘되서가 35.5%, 주변인의 권유에 의해서가 20.5%, 성적에 맞춰서가 7.8%이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53.6%, 보통 35.5%, 불만족 10.8%이었다. 인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38.6%, 없는 학생이 61.4%이었다[Table 1].

3.2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

대상자의 인성수준은 6점 만점에 평균 4.34(± 0.59)점이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48(± 0.40),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균 2.76(± 0.32),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만점에 평균 3.27(± 0.56)이었다[Table 2].

Table 1.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Adjustment of School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66)

Variable	Categories	n	%	Adjustment of School Life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Mean $\pm$ SD	t or F (p)	Mean $\pm$ SD	t or F (p)	Mean $\pm$ SD	t or F (p)	Mean $\pm$ SD	t or F (p)
Gender	Male	36	21.7	3.30 $\pm$ 0.47	0.412	4.41 $\pm$ 0.54	0.973	4.32 $\pm$ 0.53	1.818	2.75 $\pm$ 0.28	-0.321
	Female	130	78.3	3.26 $\pm$ 0.55	(0.681)	4.32 $\pm$ 0.53	(0.322)	3.45 $\pm$ 0.41	(0.071)	2.77 $\pm$ 0.34	(0.748)
Academic grade	1st	29	17.5	3.22 $\pm$ 0.46		4.41 $\pm$ 0.52		3.55 $\pm$ 0.44		2.87 $\pm$ 0.031	
	2nd	59	35.5	3.21 $\pm$ 0.56	1.118	4.33 $\pm$ 0.57	0.240	3.48 $\pm$ 0.42	0.494	2.74 $\pm$ 0.33	1.462
	3rd	53	31.9	3.29 $\pm$ 0.48	(0.344)	4.32 $\pm$ 0.46	(0.869)	3.44 $\pm$ 0.37	(0.687)	2.73 $\pm$ 0.030	(0.227)
	4th	25	15.1	3.43 $\pm$ 0.64		4.32 $\pm$ 0.55		3.48 $\pm$ 0.40		2.78 $\pm$ 0.35	
Religion	Yes	66	39.8	3.31 $\pm$ 0.51	0.720	4.39 $\pm$ 0.57	1.120	3.52 $\pm$ 0.41	1.102	2.78 $\pm$ 0.35	0.630
	No	100	60.2	3.24 $\pm$ 0.55	0.473	4.29 $\pm$ 0.50	0.265	3.45 $\pm$ 0.40	0.272	2.75 $\pm$ 0.31	0.530
Family members's involvement in medical related areas	Yes	32	19.3	3.37 $\pm$ 0.59	1.234	4.44 $\pm$ 0.53	1.261	3.53 $\pm$ 0.39	0.852	2.71 $\pm$ 0.34	-1.133
	No	134	80.7	3.24 $\pm$ 0.52	(0.219)	4.31 $\pm$ 0.53	(0.209)	3.47 $\pm$ 0.41	(0.395)	2.78 $\pm$ 0.32	(0.279)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80	48.2	3.31 $\pm$ 0.546	0.974	4.29 $\pm$ 0.483	-1.216	3.43 $\pm$ 0.384	-1.504	2.73 $\pm$ 0.321	-1.406
	No	86	51.8	3.23 $\pm$ 0.526	(0.332)	4.39 $\pm$ 0.567	(0.223)	3.52 $\pm$ 0.419	(0.135)	2.80 $\pm$ 0.326	(0.162)
Experience of character education	Yes	64	38.6	3.35 $\pm$ 0.50	1.470	4.32 $\pm$ 0.52	-0.180	3.49 $\pm$ 0.39	0.271	2.81 $\pm$ 0.33	1.519
	No	102	61.4	3.22 $\pm$ 0.56	(0.144)	4.34 $\pm$ 0.54	(0.857)	3.47 $\pm$ 0.42	(0.786)	2.73 $\pm$ 0.32	(0.131)
Motivation of entrance	Aptitude ^a	60	36.1	3.40 $\pm$ 0.504		4.42 $\pm$ 0.510		3.51 $\pm$ 0.438		2.87 $\pm$ 0.321	4.028
	Job ^b	59	35.5	3.16 $\pm$ 0.536	2.339	4.26 $\pm$ 0.496	2.102	3.46 $\pm$ 0.32	0.688	2.68 $\pm$ 0.293	(0.009)
	Other's opinion ^c	34	20.5	3.20 $\pm$ 0.444	(0.075)	4.24 $\pm$ 0.541	(0.102)	3.42 $\pm$ 0.398	(0.561)	2.70 $\pm$ 0.300	a>b
	Grades(mark) ^d	13	7.8	3.36 $\pm$ 0.783		4.56 $\pm$ 0.653		3.59 $\pm$ 0.575		2.79 $\pm$ 0.421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action ^a	18	10.8	3.00 $\pm$ 0.62	17.299	4.26 $\pm$ 0.66	11.785	3.40 $\pm$ 0.48	5.580	2.52 $\pm$ 0.40	18.263
	Moderate ^b	59	35.5	3.04 $\pm$ 0.49	(<0.001)	4.10 $\pm$ 0.48	(<0.001)	3.36 $\pm$ 0.39	(0.005)	2.65 $\pm$ 0.28	(<0.001)
	Satisfaction ^c	89	53.6	3.48 $\pm$ 0.46	a,b<c	4.50 $\pm$ 0.47	b<c	3.57 $\pm$ 0.38	b<c	2.89 $\pm$ 0.28	a,b<c

Post-hoc comparison=Scheffé

Table 2. Degree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Adjustment of School Life (N=166)

Variable	Mean±SD	Min	Max
Character	4.34±0.59	3.18	5.6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48±0.40	2.30	4.67
Professional Self-Concept	2.76±0.32	1.67	3.81
Adjustment of School Life	3.27±0.56	1.79	4.89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대학생활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대학생활적응 정도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1].

인성은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보통인 학생에 비해 높았다($F=11.785$, $p<0.001$). 비판적사고성향은 전공만족도가 보통인 학생에 비해 만족한 학생이 높았다($F=5.580$, $p=0.005$). 전문직자아개념은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학생이 취업이 잘되어 지원한 학생보다 높았으며($F=4.028$, $p=0.009$),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학생이 불만족과 보통인 학생에 비해 높았다($F=18.263$, $p<0.001$). 대학생활적응은 전공만족도에서 전공에 만족인 학생이 불만족이거나 보통인 학생에 비해 높았다($F=17.299$, $p<0.001$).

3.4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인성($r=.512$)과 비판적 사고성향($r=.508$), 전문직 자아개념($r=.614$)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Adjustment of School Life (N=166)

Variable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djustment of School Life
	r(p)	r(p)	r(p)	r(p)
Character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605 ($<.001$)	1		
Professional Self-Concept	.532 ($<.001$)	.534 ($<.001$)	1	
Adjustment of School Life	.510 ($<.001$)	.508 ($<.001$)	.614 ($<.001$)	1

또한 인성은 비판적 사고성향($r=.605$), 전문직 자아개념($r=.533$)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전문직 자아개념($r=.3.4$)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Table 3].

3.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잔차정규성은 Dubin-Watson 통계량이 2.17로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 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검정에서도 공차한계가 .571-.646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547-1.751으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이었으며($F=42.541$, $p<.000$),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3.0%이었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of School Life (N=166)

Factor	B	S.E.	β	t	p
Character	.180	.079	.178	2.289	0.02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229	.103	.173	2.221	0.028
Professional Self-Concept	.705	.121	.427	5.845	0.000
Adj. R ² =.430 F= 42.541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와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인성수준은 평균 4.34점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5]의 3.07(6점 환산) 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성격이나 특성에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추가하여 교육자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립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 행동을 통해 육성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변화하며, 인성교육에 참여한 이후 인성수준이 향상된 것을 고려하면[13,26,27], 본 연구대상자들의 38.6%가 인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대상자의 인성교육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전공에 대해 만족도가 만족인 학생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인 학생에 비해 인성 수준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바람직하고 안정된 성격일수록 자기 직업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 가치있게 생각하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며[28], 인성수준이 높은 간호사들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14] 간호학생들도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인성 수준도 높다는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의 인성수준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Lee와 Kwon[26]의 연구에서 학년이 증가하면서 인성 수준도 높아진 결과를 보였으나 성격진단검사를 통해 간호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한 Lee와 Hong[28]의 연구에서는 4학년의 인성수준이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 연구간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인성정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인성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인성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인성수준의 차이를 보일 수 있어[29], 추후 동일한 도구로 반복연구를 통해 학년 간 인성수준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들이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과거의 효, 예절과 같은 교육에서 현재는 협동, 존중, 배려 등과 같은 소통이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여[27] 타 의료인과의 업무조정 및 협력능력이 필요한 간호대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요구도를 반영한 인성교육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으로 Yang[30]의 연구 3.42점보다 약간 높았고 Chang[31]의 3.57점 보다 낮았는데, 비판적 사고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동기, 바람 태도로서 교육을 통해 향상되는 것으로[22], Chang[31]의 연구에서는 비판적사고가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연구대상자들이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었으나 본 연구대상자들은 비판적 사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들로 교육기회의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학생이 불만

족과 보통인 학생에 비해서 높은 결과를 보였다.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Ha와 Park[32] 연구에서 전공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았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이 좋을수록 대인관계가 좋고 대학생활적응 수준도 높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간호사들도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현장에서의 근거기반 실무역량이 높아[7] 대학생활 중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 향상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유도하고 졸업 후 전문간호사로서 실무역량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향상되므로 주입식 교육보다는 다양한 교수방법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과정 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2.76점으로 Ahn과 Lee[33]의 2.70, Ha와 Park[32]의 2.75점과 비슷하였으며, Shin과 Cho[9]의 2.91 보다는 낮았는데 이는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교육과정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임상실습과 실무경험을 통해 확대되고 간호교육자나 간호전문가들의 사고나 행동을 학습하면서 발전되는 것으로[24] Shin과 Cho[9]연구는 연구대상자들이 3학년과 4학년이었으나, 본 연구대상자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골고루 분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전공만족도가 불만족과 보통인 학생에 비해 만족인 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Ha와 Park[32]의 연구와 Shin과 Cho[9]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결과를 보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학생이 취업이 잘되어 지원한 학생보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았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33].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전공체험과 선배배와의 교류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입학한 간호대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이해 없이 입학한 학생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34],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대학입학 전에 간호전공에 대한 정보제공과 전문직 자아개념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파악하여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활적응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7점으로 Han[17]의 3.27점과 같았으며 Kim과 Jang[3]의 3.09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전공에 대해 만족한 학생이 전공에 대해 불만족이거나 보통인 학생에 비해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18]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았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전공만족도는 입학 동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전공 학과를 선택할 때 본인 의사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학년, 학과 지원동기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15,16,33] 본 연구에서는 학년, 학과지원동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성,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이었고 이들 변수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3.0%이었다. 이중 전문직 자아개념이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직 자아개념 확립을 위한 교과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추후 간호대학생들의 학년별 차이에 대한 확대 연구, 인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이를 통해 대학생활적응향상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J와 C 도 소재 간호대학생 166명으로, 자료수집은 2016년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s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만점에 3.27점, 인성은 6점 만점에 4.34점,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48점,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2.76점이었다. 인성은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보통인

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전공만족도가 보통인 학생에 비해 만족한 학생이 높았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적성에 맞아서 지원한 학생이 취업이 잘되서 지원한 학생보다 높았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이었으며 이중 전문직 자아개념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전문직 자아개념 확립을 위한 교과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간호대학생들에게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상자수를 확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학년별 특성과 전공만족도를 반영한 확대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4-23, 2010.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0.40.1.14>
- [2] H. Y. Lee, "Parenting Behavior and Adjustment to College : Moderating effect of Cultural Dispositions",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vol. 14, no. 3, pp. 337-355, 2008.
- [3]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312-322,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4]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5.2178>
- [5] Y. H. Kim, "Effect of Career Empowerment Program o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12, pp. 817-828,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2.817>
- [6] K. S. Kim, "A Study on Professional Self 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3, no. 4, pp. 1991-2001, 2011.

- [7] Y. S. Kim, J. M. Kim, M. M. Park, "Factors Influencing Competency in Evidence-based Practice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1, no. 2, pp. 143-153, 2015.
DOI: <http://dx.doi.org/10.1111/jkana.2015.21.2.143>
- [8] K. Y. Kim, E. J. Lee, "The Relationship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Nursing Process Competency and Evidence-based Practice Competency in Nurses Working in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7, no. 2, pp. 451-461, 2016.
DOI: <http://dx.doi.org/10.7465/jkdi.2016.27.2.451>
- [9] K. A. Shin, B. H. Cho,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9, no. 1, pp. 46-56, 201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1.046>
- [10] N. S. Ha, S. Y. Park, M. J. Lee, "A literature Review (1996-2014) Critical Thinking in Korean Nursing Education for the Era of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9, pp. 341-349, 2015.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5.13.9.341>
- [11] S. S. Yang, H. I. Kim, K. P. Joo, "A Study of Companies' Perception on University Education and Their Needs",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vol. 9, no. 2, pp. 145-170, 2006.
- [12]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Korean standard unabridged dictionary. 2016. Available from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accessed May, 7, 2016)
- [13] J. H. Park, "Need for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6, pp. 3321-3332, 2013.
- [14] S. H. Hong, K. S. Park, "A Study of Personality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8, no. 3, pp. 489-500, 2002.
- [15] K. H. Yang, J. R. Lee, B. N. Park,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at a Junior Colleg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8, no. 1, pp. 5-13,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05>
- [16] S. O. Choi, J. K. Park, S. H. Kim,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182-189,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182>
- [17] J. S. Han,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459-4466,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459>
- [18] Y. S. Choi,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9, no. 3, pp. 423-432,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423>
- [19]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 A flexible s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No 2, pp. 175-191. Available from : http://www.coe.fsu.edu/content/download/51987/428157/file/Faul_2007.pdf (accessed May, 10, 2016)
- [20] E. I. Jeong,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Methodology Studies*, vol. 21, no. 2, pp. 69-92, 2009.
- [21] Y. S. Lee, H. Y. Kang, S. J. Kim, "A Validation Study of the Character Index Instrument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vol. 31, pp. 261-282, 2013.
- [22]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2004.
- [23] Arthur, D.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Newcastle, 1990.
- [24] K. Y. Sohng, C. H. Noh,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6, no. 1, pp. 94-106, 1996.
- [25] S. J. Kim, "A Study of a Character Education Plan According to Character Levels and Requirements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 23, no. 2, pp. 1-19, 2016.
DOI: <http://dx.doi.org/10.15284/kjhd.2016.23.2.1>
- [26] Y. S. Lee, M. J. Kwon, "A Longitudinal Study on Character Level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vol. 36, pp. 259-282, 2015.
- [27] H. J. Ji, "An Inquiry into the Awareness on the Liberal and Character Education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7, no. 5, pp. 433-466, 2013.
- [28] M. S. Lee, C. S. Hong, "A Study of Relationship among the Nursing Students Personality, self Concept and Perceptual Orientation", *Chungnam Medical Journal*, vol. 17, no. 10, pp. 301-313, 1990.
- [29] M. H. Seong, E. J. Kim, "An Analysis on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Education, Personality Development Level and their Demand for Personality Education",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vol. 38, pp. 177-202, 2015.
DOI: <http://dx.doi.org/10.18850/JEES.2015.38.07>
- [30] H. J. Yang,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2, pp. 6387-6394,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2.6387>
- [31] S. K. Chau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8, no. 1, pp. 71-78, 2011.
- [32] N. S. Ha, H. M. Park, "The Impacts of Professional Socialization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on Role Conflic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5, no. 2, pp.

47-56, 2009.

- [33] S. A. Ahn, K. S. Lee, "Effects of Hardiness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4, pp. 2165-2178, 2013.
- [34] Y. H. Kim, "The Effects of College Life Adapt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apt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2, pp. 8948-8956,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2.8948>

임 미 혜(Mi-Hye Lim)

[정회원]



- 2001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0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3월 ~ 2015년 1월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2월 ~ 현재 :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건강증진, 아동간호